

김용기의 목민주의 사상에 관한 고찰

이호성 (홍익대학교)

요 약

본 논문은 한국의 농촌 계몽 운동가이자 국민정신 교육가였던 김용기의 사상을 목민주의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김용기의 교육적 배경과 운동을 생애와 사상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몇 가지 준거 틀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김용기는 우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육사상적 특징을 지닌다. 첫째, 국가적 위기의 시대적 혼돈기에 태어나서 개척적인 정신의 힘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운명을 타개해 낸 인물이다. 둘째,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계몽주의적 인문 정신교육 방식에 주력했다. 셋째, 신앙인으로서 성장하여 하나님 중심적 사상을 기초로 하여 농민 교육 운동에 힘썼다. 넷째, 제도적 교육이 아닌 평생 교육으로서의 빈민을 위한 대안 교육에 힘썼다. 다섯째, 민족주의적인 노선에서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해방 독립정신을 교육하고 실천했다. 여섯째, 김용기의 교육 방법론은 후세에 평생교육과 대안교육의 모델이 되고 있고 세계로 확산되어 갔다. 김용기의 사회 교육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모두 기독교적 신앙이 투철했던 점과 무엇보다도 그들의 시대적 사명의식이 강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것은 민족의식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농촌을 살려 복지 국가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토포아적’ 낙원의 이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그는 신앙심과 도덕성으로 무장된 근면과 성실을 기초로 한 숭선 수범형의 실천적 운동가였던 것이다. 그는 평생 교육지도자로서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다. 그의 방향성은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 계몽형태의 사회 교육기관으로 출발하여, 국민정신교육과 시민정신 및 세계 시민교육으로 확산 전개되어 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김용기의 교육 사상은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아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는 등 동남아 12개국에서도 공동체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키워드(Keywords): 김용기, 교육사상, 사회교육, 농민계몽운동, 인문주의, 목민주의

I. 서론

현대의 산업사회의 정보 혁명은 그 어느 때 보다 삶의 질을 급격히 바꾸어 왔다. 21세기의 정보 산업 시대에는 물질적 풍요로움 이면에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분화로 인한 분배의 불균형이 심해져서 빈부격차와 실업률 증가 등이 또 하나의 현대 사회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대 다수의 하층 노동자와 농민들의 삶은 더욱 황폐해지고 있다. 이에 따른 하층민의 고단한 삶의 형식은 더욱 열악해지고 한국 사회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져서 다른 나라에 비해 자살률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제도 교육은 이를 충분히 치유하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소외된 자들에 대한 각별한 농민운동을 벌이고 평생 교육을 실현한 선구적 모델을 찾아 그 교육적 의미를 되새겨 보는 일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20세기 중반 한국 사회가 민족 간의 전쟁을 겪고 그 이후 극심한 가난과 고통 속에서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고자 노력했던 선구적인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일가(一家) 김용기(1909-1988)였다. 그는 계몽주의와 신인문주의적 이상을 가지고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교육 운동을 펼치면서 한국 사회에 새로운 교육적 이정표를 세웠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가의 교육사상과 그 실천에 초점을 두면서 일가의 목민주의¹⁾ 사상의 의의와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일가의 사상은 사상사적으로 계몽주의와 인간중심주의를 계승하고 있다. 일가는 생애 초기와 중기에 농장 경영을 하면서 빈민과 어린이 교육에 힘썼던 인물이다. 그러한 노력이 농군학교로 발전하여 점차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대중 교육 및 국민교육으로 발전했으니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목민주의 사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운동’적 차원의 사회교육 사상과 실천이 오늘날 위기에 처한 한국의 사회교육에 대해 어떠한 실천적 교훈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일가의 사상이 가지는 교육적, 신앙적, 계몽주의적 영향과 그 실천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점은 무엇이며 그 영향의 결과로 오늘날 우

1) 목민주의(牧民主義)는 백성을 목양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김용기에게서 목민사상은 곧 그가 특별히 주장하는바 백성이 복되게 한다는 뜻의 복민(福民)사상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특별히 ‘복민’은 하나님의 복 받은 백성이라는 뜻도 담겨 있지만, 이후의 논의에서 목민 사상은 큰 틀에서 복민 사상과 동의어임을 밝힌다. cf. 고재성, “김용기 장로의 영성적 삶”, 『기독교 사상』(2000년 12월), p.85.

리에게 미치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일가는 빈민운동가로서의 실천가일 뿐 아니라 교육사상사적으로 볼 때에도 나름대로의 교육관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기의 사상이 부분적으로 소개되기는 했지만 그의 독창적인 목민(牧民)주의 사상이 한국 사회에 교육적 신앙적 계몽주의적 영향사적 관점에서 소개된 논문은 보기 드물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몇 가지 과제를 가지고 현대적 의미와 연관하여 논의를 진행 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서 각종 문헌 자료를 기초하여, 일가의 사상적 이론과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가의 교육사상과 실천에 관련된 생애사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제2차 연구 문헌도 다룰 것이다.²⁾ 이를 위해 일가의 사상에 대한 일반적인 개관을 위해 다루어지는 문헌 분석과 일가 김용기의 교육사상이나 신앙관 그리고 계몽주의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우선, 김용기의 사상과 실천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연구 성과를 예비적 고찰로 다룬다. 여기서 주된 문헌 자료는 일가에 대한 전기 및 자서전적 자료와 같은 제1차 문헌이다. 다음 단계로 일가 교육사상의 보편적인 측면과 독자성을 추출해내는 과정이다. 여기서는 교육사상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해석적인 방법에 입각하여 자료 해석, 종합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준거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될 것이다. 그 네 가지는 기독교적 전통에서 종교관, 인문주의적 흐름에서 목민주의, 사회교육의 방법론 그리고 사회적 맥락의 특수성이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상의 준거	
보편성	특수성
기독교 흐름	일가의 기독교
인문주의 사상	일가의 목민주의(牧民主義)
사회적 실재	한국적 상황
사회교육(social pedagogy)	일가의 교육방법론

2) 김용기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도표화 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논문이 있다. 방정은, “일가 김용기의 지역 공동체 평생 교육자적 특성에 관한 연구”, (동의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p.27. 이 자료에 의하면 김용기를 주제로 다룬 석사학위가 1994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7편에 달한다. 그 중에 농촌 이상촌에 대한 것이 2편, 복민 운동에 대한 것이 2편,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육 문제가 3편이다. 2008년 이후에 다루어진 연구들도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취급할 것이다.

일가 사상의 보편성은 기독교 흐름, 인문주의 사상, 사회적 실재, 사회교육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보편성이 일종의 준거라면, 일가의 특수성은 기독교 사상의 독자적인 측면, 인문주의의 동양적 전통인 목민주의, 사회적 맥락의 차별성으로서의 한국적 상황 그리고 일가의 독특한 사회교육의 방법론은 일가의 독특한 사상을 이룬다. 이러한 준거 틀을 중심으로 하여 일가가 이룬 독자적인 교육적, 신앙적, 계몽적 영향력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김용기의 교육 사상이 형성된 역사적 과정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II. 김용기의 교육 사상적 형성 배경

김용기의 교육 사상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생애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겠으나, 이 논문에서는 그의 생애사를 시대상과 관련지어 편의상 유·소년시대, 청년기에 맞이한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항쟁기, 해방 직후의 정황, 그리고 전쟁 이후에 건설된 가나안 농군학교 시대로 구분하여 그의 교육 실천 활동을 중심으로 개관하기로 하겠다.

1. 유·소년시대의 유교적 배경과 기독교 그리고 민족의식

일가(一家) 김용기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그의 셋째 아들 김평일이 엮은 책,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³⁾ 이 책에 따르면, 김용기는 1909년 9월 5일에 경기도 양주군 와부면 능내리 봉안 마을에서 아버지 김춘교와 어머니 김공운 사이의 다섯 아들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대대로 유교적 가풍이 엄한 안동 김씨의 가문에서 그가 태어났는데 당시 부모는 중농(中農) 계층에 속하였다. 김용기가 3세 되던 해에 부친이 기독교를 믿게 되는데 그 이유는 김용기가 몸이 아팠기 때문에 아들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동기에서였다. 어느 날 전도사가 찾아와서 건네 준 책자 속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았다.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요한복음3:16).” 김춘교는 이 말을 유교식으로 “순천자흥(順天者興) 역천자망(逆天者亡)”이라고

3) 김평일 엮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하남시: 가나안 문화사, 2007), pp.317-327

해석하고,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흥하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기독교를 받아 들었다. 말하자면 기독교의 종교적 의미가 유교적 해석과 적절하게 접목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가 전파되어 오던 초기의 토착화 해석을 보게 되는데, 이것 또한 기독교가 유교적 지식인들에게도 쉽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 또 하나의 토양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용기가 7세 되던 해인 1915년에는 이미 한일 합방으로 일제의 침략 속에 들어 간 식민지시대였다. 당시 김용기는 마을 서당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였다. 이때부터 13세까지 『명심보감』, 『통감』, 『소학』 등을 중심으로 한학에 입문하면서 기초 한문을 익히기 시작하였다. 1919년 기미년 독립 선언이 있을 당시인 11세 때에, 3·1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마을에서는 아버지 김춘교가 마을의 주동이 되어 독립운동을 일으켰다. 이 당시 마을 주민과 이웃 마을이 합세하여 수백 명의 만세 행렬이 덕소애까지 이어졌다. 이때 김용기는 처음으로 군중 시위와 태극기의 물결을 보았던 것이다.⁴⁾ 여러 마을 사람들이 합쳐서 큰 군중을 이루자, 마을 앞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치며 “왜놈들이 우리 임금 고종 황제께 독약을 먹여 돌아가시게 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 소리를 들은 군중은 분노의 울음을 터트리며 저항의 함성이 드높아 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김용기 자신은 일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것만 알았지 어른들과 같은 분노에 휩싸이지는 않았다고 술회했다.⁵⁾ 그러나 그에게도 민족의 비운을 짐작하기는 하고 있었으며, 그 민족의식이 더욱 확고해진 시기는 광동학교에 들어 간 이후였다.

김용기는 기독교적 분위기와 한학 교육과 함께 어린 유 소년기를 거치게 된다. 14세가 되던 해 김용기는 양주에 있는 기독교 계통의 광동학교에 입학했는데, 이는 독립 운동가였던 여운형이 설립한 학교였다. 성적이 뛰어났던 그는 통솔력도 있어서 반장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학교 교장이 그를 반장으로 추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너는 공부도 잘 할 뿐만 아니라, 행동도 바르니 너 밖에 반장 할 사람이 없다.”⁶⁾ 선생님들의 신임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선생들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지만, 그는 동시에 지나치게 교만해져서 갖을 쓴 어른 학생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완력을 사용하여 급기야는 학부 모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를 알게 된 김용기의 어머니는 당시 자신을 매질하면서 아들의 잘못을 누우치게 함으로써, 아들로부터 학생들에게 더 이상

4) *ibid.*, p.318

5)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서울: 규장, 1998), p.39

6) *ibid.*, pp.32-33.

폭력을 휘두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김용기는 완력 대신에, ‘근로, 봉사, 희생’의 정신을 그날부터 실천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같이 태도가 돌변한 것도 어머니의 교훈이 있었던 것이고, 그 후로는 광동학교를 졸업 할 때까지 낙원 같은 생활을 했다고 술회한다.⁷⁾

이 후부터 그는 민족의식을 고취하게 되는데, 광동학교 시절 이전에는 11세의 소년으로서 기미년 3월 1일의 독립만세의 물결을 목격했지만 그다지 뚜렷한 민족의식이 없었다. 하지만 광동학교를 다니면서 민족의식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이 학교에서 그는 여운형의 독립정신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당시 김용기가 느낀 시대의 불운과 분노는 일본의 만행에 관한 것으로서, 고종 황제의 독살 사건과 우리 민족에 대한 학살 등이었다. 김용기도 이 일제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술회했다. 김용기는 이렇게 알게 된 “민족의 비운과 왜놈들의 만행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그때 나로서는 어찌 할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⁸⁾라고 당시의 심정을 토로한다.

2. 일제와 해방직후

만18세 되던 1926년 봄, 김용기는 5년 만에 광동학교를 졸업했다. 일제의 지배는 점점 가혹해졌고, 민족의 운명은 어두워만 갔다. 그는 8월에 일제와 싸우려는 커다란 야망을 품고 마적단(馬賊團)에 들어가기 위해 만주로 간다. 김용기는 단지 자주 독립을 찾자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을 아주 멸망시키자는 야망을 가졌던 것이다.⁹⁾ 만주로 간 그는 봉천(奉天)의 조선인촌에 있는 서탑교회 이성락(李成洛) 목사를 만나 일본을 멸망시키겠다는 자신의 포부를 밝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사의 설득으로 포기하고 두 달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다. 김용기 자신의 계획이 이처럼 허무한 것이 되고 만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고백한다. 하나는 어린 학생 시절 자신이 줄곧 반장을 지내면서 스스로 선천적인 지도자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만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왕 지도자가 될 바에는 대국의 지도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는 것이다.¹⁰⁾

그럼에도 만주 여행은 결코 헛된 일만은 아니었다. 광활한 대륙을 바라보며 옛 고구려의 기상을 다시 확인했고, 만주에 사는 중국인과 조선 동포들의 실상

7) *ibid.*, p.37

8) *ibid.*, p.42

9) *ibid.*, p.44

10) *ibid.*,

을 자세히 관찰하고 경험함으로써 오히려 앞날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된 여행이었다. 당시의 국제 상황은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둠으로써 일본의 만주에 대한 야망이 노골화 되던 시기였다. 요컨대 만주는 러·일·중 삼국의 각축장이 되고 있었던 셈이다. 그 와중에서 일본의 식민지가 된 한국의 운명을 되살리려는 청년 김용기는 만주 벌판에서 무언가 혁명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그는 그곳의 마적단의 세력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도둑떼 중에는 나라와 동족을 위한 지하 조직을 가지고 외국군에 대한 테러와 약탈을 통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의적(義賊)들도 있었다. 김용기는 이 의적단에 가입하려고 결심했다. 힘과 무예가 있어서가 아니라, “명석한 두뇌와 통솔력, 그리고 견인불발의 인내와 노력”이 있으면 의적단의 두목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¹¹⁾ 그리하여 서탑교회의 이성락 목사를 찾아가서 만주에 온 이유를 밝히고 마적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신을 말하자, 이 목사는 진지한 모습으로 타일렀다고 한다. “뜻은 참 훌륭하다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정도에 지나친 생각은 망상일 뿐”이라는 충고를 해주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중국대륙을 지배하려는 망상을 버리고, ... 큰 지역에서보다 작은 지역에서 훨씬 더 일의 성과를 내기가 쉬운 것이니 조선에 돌아가서도 얼마든지 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 귀국을 종용했다고 한다.¹²⁾

기독교 정신과 독립정신으로 무장된 그는 만주에서 돌아 온 뒤 어느 날 강화도 마니산에서 40일간의 기도를 했는데, 고사(古事)의 세종대왕처럼 3일간의 기도로 마니산을 흔들리게 하고 싶었지만 41일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자 그냥 하산을 했다고 한다. 이 무렵 그는 밤낮으로 성경을 탐독하던 시기였다.¹³⁾ 26세 되던 1934년에 아버님이 별세하였는데 그 때, 아버님으로부터 “너는 꼭 훌륭한 농사꾼이 되라”는 유언을 받게 된다. 이 당시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용품 가게를 차려 장사도 해 보고 금광에도 손을 대어 일약 부자가 되는 꿈을 꾸어 보기도 했지만 부친의 유언을 이어받아 일생을 농사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게 된다.¹⁴⁾

그는 장차 이상촌을 건설할 목적으로 동지들을 불러 들었다. 먼저 자신의 형

11) *ibid.*, p.51

12) *ibid.*, p.52

13) 김평일 엮음, *op.*, *cit.*, 318, 김평일이 엮은 이 책에서는 김용기가 17세에 마니산에서 40일 간의 기도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김용기의 저술인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의하면, 만주를 다녀 온 이후의 일로 기록 되어있는 것과 기도 내용 등으로 보아서, 17세가 아닌 광동학교를 졸업한 그 이후의 일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14) 김평일 엮음, *op.*, *cit.*, p.319

제들이 동참하였다.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모였고 멀리 만주에서까지도 찾아왔다. 그리하여 그는 1935년 27세의 나이로 자신의 고향인 봉안 마을에 ‘봉안 이상촌’인 ‘십가촌(十家村)’ 건설을 위해 10명의 동지를 모았던 것이다. 마을의 이상적인 호구수로 10가구로 정했던 까닭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많은 일을 하게 된다. 그야말로 고단했지만 꿈같은 ‘이상촌’ 시절이 이때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이상촌 생활은 날로 번영해 갔다. 그러한 이상촌이 발전해 갔던 근본적인 동기 가운데 하나를 김용기는 신앙의 힘이었다고 말한다. 이 신앙의 힘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언급하기로 한다.¹⁵⁾

김용기의 항일 운동은 해방 직전까지 계속 이어지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¹⁶⁾ 그 구체적인 방안 중에 하나가 각 군, 면, 리가 철통같이 단합하여 징병 징용 대상자를 상호 은닉, 기피케 하고 공출 반대의 방안으로는 가능한 한 논농사 대신에 공출하지 않는 고구마 농사를 지어 식량으로 대신하자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김용기는 일제 탄압의 시대를 맞아서도 봉안 이상촌을 중심으로 지방민들과 함께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배일사상의 항일 운동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해방 되던 해, 8월 20일에는 이상촌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서울로 상경하여 신당동 하숙집에 거점을 잡았다. ‘농민들이 한데 뭉쳐 이상촌을 건설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농민 동맹>을 결성하였으나 성공하지는 못했다. 공산주의자 허 모씨 등이 지하에서 조직하여 나온 ‘농민 조합’이라는 단체와 정면으로 대결하게 된 것이다. 그들의 조직은 사전에 강력하게 조직된 단체였다. 그들은 이미 해방직후 좌익계 전성기의 정치세력과 강하게 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¹⁷⁾

1948년 과도정부 당시에는 농림부장관 초청으로 서울 YMCA 강당에서 ‘농촌 진흥 협회’ 간부들에게 강연을 하면서 농촌 건설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많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농촌을 위해 진정으로 일할 마음이 있으면, 1주일 이내로 당장 시골로 내려가라. 범을 잡으려면 범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요지였다. 그러나 그 간부들 가운데 농촌으로 직접 내려간 이는 없었다고 술회한다.¹⁸⁾

김용기는 그후 고향인 양주(楊州) 봉안촌에서 전쟁을 맞게 되었다. 8월 28일 밤, 무장한 인민군 4~5명이 집으로 찾아와 ‘김용기 나오라’고 호통을 치며 잡아 가려고 했으나, 사랑으로 그들을 설득하여 죽음을 면했다고 한다. 김용기는 전

15) *ibid*, pp.90-95

16) 김평일 엮음, *op.*, *cit.*, p.320

17)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p.114

18) *ibid*, p.149

쟁 기간 중에도 1952년 5월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사암리에 6만 여 평의 산광을 구입하여 ‘에덴향’ 건설에 착수했다. 그는 오랜 개척 생활을 하였지만 이 시기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술회하고 있다. 그러나 피땀 흘려 건설한 에덴향의 건설은 달과 해가 갈수록 비옥한 농지로 변해 갔고, 고등 농민학교의 학생 수도 늘어 갔으며, 교회에 나오는 이웃마을 사람들도 늘어 갔다. 하지만 에덴향의 완성을 거두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개척의 길을 나섰다.¹⁹⁾ 이곳에 ‘에덴 교회’, ‘복음 농도원’, ‘복음 농민 고등학교’ 등을 세웠던 것이다. 다음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뜬다.²⁰⁾

3. 가나안 농군학교 시대

전쟁 중에서도 피나는 개척을 했던 에덴향에서 나와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 나선 이후, 김용기는 1954년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풍산리(현 하남시)에 황무지 1만여 평을 구입하여 ‘가나안 농장’ 건설에 착수하였다. 당시 개척에 처음 임한 가족으로는 부부와 장남, 차남, 삼남, 장녀, 차녀 그렇게 모두 일곱 식구였다.²¹⁾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이사하려고 노력했지만, 김용기는 오히려 가족과 더불어 개간을 위한 목적으로 좋은 땅 보다는 황무지를 골라 황산 1만평을 구입했다. 그는 순종하는 착한 자식들을 쉽게 설득시킬 수 있었고, 아내 또한 결혼 초부터 자신의 결정에 모두 순종하여 늘 자신이 가정적으로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렇게 자신감을 얻는 그는 더욱 담대하게 강연에 임했다. 이때의 강연 내용은 의식주의 개선과 간소화 그리고 미신 타파 등으로 생활 개혁에 관한 내용이 주로였다. 첫째, 새로운 경제생활로 술 담배에 대한 절주와 금연 운동. 둘째, 주거 생활의 개선으로 안정된 거실과 위생적인 설비시설 그리고 작업장과의 거리다. 셋째, 식생활의 개선으로, 쌀밥보다 영양가 높고 비용이 적게 드는 빵을 먹고, 부식물은 날것을 먹으며, 단백질 보급으로 젓앙을 기르고, 고구마를 생산 주식으로 하는 것. 넷째, 작업에 어울리는 의(依)생활의 개선. 다섯째, 의식(儀式)의 개선. 결혼식이나 장례 혹은 제사 때문에 치르는 허례허식 등을 없애거나 간소화해야 한다. 여섯째, 육체면의 생활 개선이다. 화장도 남편의 의향을 따라서 하는 게 좋다는 것. 여기서 여자의 서양식 화장법에 대해 김용기는 강한 비판의 소리를 낸다. 오직 남편을 위

19) *ibid.*, pp.189-190

20) 김평일 엮음, *op. cit.*, pp.321-322

21) *ibid.*, p.196

해 저녁에나 하는 화장이어야 한다는 보수적인 생각도 피력한다. 일곱째, 미신의 타파다. 그는 미신은 문명의 대적이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일수록 미신을 많이 신봉한다면서 이를 배격했다. 무당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다면서, “하나님은 진짜 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그의 기독교 신앙의 절대 신앙에서 나오는 확신 때문이다. 그의 강연 내용의 여덟 번째는 이농(移農)의 방지였다. 농사는 일하기 힘들고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하여 이농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농사를 잘 지을 줄 모르기 때문이라며 게으르고 연구심 없는 영농법을 개선하여 경제성 위주의 영농으로 이농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기 자신의 가정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5명으로 모두가 농사꾼이라고 자부하며 최고의 직업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48세 되던 해인 1956년에는 전국의 교회를 돌면서 부흥회를 개최하였다. 부흥회의 주된 내용은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신앙화’였다. 그리고 대학을 나온 김용기의 가족들이 모두 교사가 되어 천막교회 내부에 ‘소생(蘇生)학원’을 설립하여 무료로 낮에는 미취학 아동들에게 초등학교 과정을 교육했고, 밤에는 미진학 아동들에게 중학교 과정을 가르쳤다. 중학교가 없던 당시로서는 마을 주민들이 대 환영이었다. 그리고 ‘가나안의 노래’를 직접 작사하여, 서울대 농대 조승제 교수에게 작곡을 의뢰하여 학생들이 부르게 하였다.²²⁾

김용기가 53세 되던 해인 1961년 5월 16일에 군사 쿠데타 일어났다. 그 후 당시 경기도 지부의 요청으로 재건 운동 요원 3,000명을 수개월에 걸쳐서 교육하게 된다. 이때부터 김용기는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할 것을 구체적으로 꿈꾸게 되었고, 1962년 2월 1일에 드디어 가나안 농군학교를 개교하기에 이르렀다. 첫 결실로는 인근의 농민 32명을 교육하여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3월 9일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위원 전원과 장관 전원을 대동하고 ‘가나안 농장’과 ‘가나안 농군학교’를 둘러보게 되었다. 김용기는 가나안농군학교의 성공적인 활동에 힘입어 전국각처에 강연활동을 하게 된다. 1967년에는 김해 봉황산의 불교 농도원의 초청을 받아 ‘혁신 불교 대회’에서 강연하여 많은 공감을 얻어 내었고, 정부 각 부처나 기업체 등에서도 초청 강연이 쇄도하였다. 같은 해 7월 17일에는 막사이 상의 수상금으로 가나안 교회 건물을 준공하였다. 1968년 1월에는 가나안 농군학교 제50기를 배출 하였다. 이때부터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육이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고, 9월에는 가장 유명한 유작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라는 훌륭한 저술을 남기게 된다.²³⁾ 이 밖에도 1960년대

22) *ibid*, p.217

23) 이 책은 1968년, 9월 10일에 초판발행 되었으나, 30년이 지난 1998년에 규장 출판사

후반에, 《월간 가나안》 잡지를 통하여 자신의 신념에 찬 저술과 강연을 계속하였다. 그러한 원고를 모은 것이 『운명의 개척자가 되자』라는 책으로 엮여져 나왔다.²⁴⁾ 1970년 62세가 되는 해 그는 『이렇게 살 때가 아닌가』라는 책을 출간한다. 이 무렵 군부대에서부터 많은 교육생을 위촉해 와서 가나안 농군학교의 근면하고 검소한 애국 운동을 교육한다. 1971년 63세가 되던 해에는 제100기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때까지의 수료자는 모두 2만 5천명에 달했다.

1973년 65세 되던 해 3월에, 강원도 원성군 신림면 용암리의 치악산 중턱을 개간하여, 돌산 15만평 규모의 ‘신림동산(神林園)’ 기공식을 가졌다. 가나안 농장에 이어 성공적인 가나안 농군학교를 개설하였고, 또한 제2의 가나안 농군학교를 강원도 산골짜기오지에 개척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면서 농군학교의 발전을 가속화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다시 심혈을 기울여, 자신의 농민교육 사상을 담은 책 『심은 대로 거두리라』를 5월에 출간한다. 6월 21일에 드디어 ‘제2 가나안 농군학교’를 개교하였다. 같은 해 10월에 ‘제1회 인촌(仁村) 문화상’을 수상하였고, 11월에는 잇따라 ‘새마을 훈장 협동장’을 수상했다.

1975년에는 가나안 농군학교는 제150기를 배출하는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닌 학교로 더욱 발전하게 된다. 이때까지의 총 수료자는 6만 명에 달했고, 이 당시 기업체의 간부와 새마을 지도자들이 대거 입교해 왔다. 2년 후 1977년에는 250기 졸업생을 배출하여 총 수료자 10만 명에 달했으니, 불과 2년 사이에 무려 4만 명의 수료자가 다녀 간 셈이다. 1년 후에 다시 제300기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이는 1년에 50기가 졸업하여 매주 수료식을 거행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처럼 왕성한 숫자의 교육 참가자로 인해 총 수료자는 이때까지 13만 4천에 이르렀다. 이렇게 왕성한 교육 활동과 국민 계몽 운동에 앞장선 그는 1988년 80세의 일기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농민과 국민 계몽 운동에 앞장섰던 것이다. 그러한 일가 김용기의 사상과 유업의 계승 발전을 위해 1991년에 일가 기념상을 제정하여 사회 공익상과 농업상 그리고 산업 상으로 구분하여 국내외적으로 시상해 오고 있다. 1991년 제1회 사회 공익상으로 태국의 전방북 시장인 잠롱이 그 상을 수상한 이래 오늘날까지 뜻 깊은 기념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에서 개정판이 나왔다.

24) 이 책은 제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 오늘의 겨레, 제2부, 겨레의 얼, 제3부, 인간의 특권과 행복, 제4부, 국민 여러분에게 고하는 글을 담고 있다 (배영사, 1975).

III. 김용기 교육 사상의 주요 특징과 그 영향

1. 교육 사상의 주요 특징

기독교 사상, 계몽주의 교육, 국가·민족주의 요소, 사회 교육론의 관점에서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에서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겠다.

1) 기독교 사상

김용기는 농부이자 한학자(漢學者)였던 아버지 김춘교에게서 어려서부터 한학과 유교 사상을 배우며 자랐다. 특히 마을 서당에서 13세까지 예의범절 등을 가르친 소학(小學)과 한문을 익혔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학교가 없었고, 서울까지 유학 가서 공부하기에는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아버지의 교훈을 받고 성장한 김용기는 아버지의 기독교 정신도 함께 이어 받는다. 아버지는 땀 흘려 농사를 지어야 할 당위성에 대하여 창세기 3장 18절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성경 구절을 말하면서 그의 아버지는 해석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어찌 역천(逆天)할까보나, 그에 따름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교훈이 김용기로 하여금 후회 없는 농사꾼이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김용기가 3살 때에 몸이 아파서 사경을 헤매며 고생할 때, 한 전도인이 전해 주었던 성서의 복음서를 읽은 김용기의 아버지는 유교적 바탕 하에서 나름대로 기독교를 해석하고 받아 들였다. 그 후 김용기의 부모는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일생을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김용기가 후에 기록한 저술에 의하면, 자신이 부모를 존경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부모님의 헌신적인 이웃 사랑에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아버지는 논에 일하러 나가실 때도 집에서 논 사이에 있는 많은 이웃 논들의 물꼬까지 터주는 일을 하였고, 어머니도 마을의 가난한 아낙네가 아기를 낳았을 때, 미역과 함께 쌀을 보내 주셨고, 혹시 누군가 끼니가 없어서 굶는 집이 있으면, 온 집안 식구들이 한 끼를 단식하게 하고 그 양식을 굶는 집에 보내주곤 했다. 이러한 이웃 사랑의 정신이 근본 훌륭한 인격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하

느낌을 받고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기독교의 정신에 투철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의 정신을 본받고 부모님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²⁵⁾ 이러한 투철한 부모의 신앙은 김용기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달되었고,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제사 보다는 부모가 살아 계실 때 더욱 잘 섬기고 효도해야 한다는 효도의 사상까지도 물려받았다.

어린 시절 서당에서 소학과 한학을 공부하면서 공자에 대하여, 그리고 유교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동시에 아버지로부터는 성경에 관한 지식과 예수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그때까지만 해도 공자와 예수는 같은 성인으로서의 훌륭한 도덕적 가르침을 베푼 분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점차 그 차이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예컨대, 성경의 ‘하나님’과 한학의 ‘천(天)’, 성경의 ‘사랑’과 한학의 ‘인(仁)’, 성경의 ‘봉사’와 한학의 ‘선(善)’을 동일시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차이점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비가 오는 어느 날 비를 맞으면서도 한학의 가르침처럼, 두용직, 수용공, 즉용중(頭用直, 手用恭, 足用重)하여, 머리를 곧게 하고 손은 공손히 하면서, 발은 엄중하게 걸어야 한다는 법절을 지키느라 비를 피해 행동을 빠르게 하지 못하고 온통 비에 젖어 고생했던 일에서 비롯된다. 물론 이 한학의 가르침을 문자대로 해석할 것이나 아니면 상황에 맞게 해석할 것이나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김용기가 경험해 왔던 방식의 한학은 다분히 율법적인 색채가 강한 것이었다. 따라서 상황에 맞지 않는 엄격한 율법적 예절과 허례허식 보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학이 형식을 중시한다면 성경은 사랑과 공손, 겸손 등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비록 김용기가 한학에 대한 성숙한 견해를 지니지 못한 결과라고도 평가 할 수 있겠으나, 당시 사회적 풍토에 비추어 볼 때 한학이 가르치는 내용은 참된 교훈 보다는 허례허식의 율법주의적 교육과 풍습으로 일관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계몽주의 교육

김용기의 교육사상을 특징짓는 계몽주의는 동양적 의미에서 정착시킨 복민주의 혹은 목민주의 사상에 잘 담겨져 있다. 김용기는 일찍이 1962년 농군학교 시절에 ‘여원’이라는 잡지 기사에 쓴 원고를 통해서 그의 계몽주의적 교육 실천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밝히고 있다.²⁶⁾ 그는 그의 농촌 생활

25) *ibid*, pp.21-22

26) 김용기, “황산을 가나안의 복지로”, 『여원』, (서울: 여원, 1962)

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한다. 첫째, 대대로 이어져 온 양반 사회가 일은 하지 않고 놀기만 좋아하여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며, 특히 농민을 천시 하였던 조상들의 죄를 대신하여 본인은 갱생의 길로서 농촌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한 목표를 세우는데, 첫째, 근로. 둘째, 봉사. 셋째, 희생. 넷째, 기술. 다섯째, 자립이라는 5가지 요소를 내세웠다.²⁷⁾ 이 가운데서 특별히 세 가지인 근로, 희생, 봉사는 일가 사상의 핵심이다. 이상의 5가지 원리를 가지고 김용기는 애국, 애족, 자애의 길을 천명한다. 그리하여 김용기는 근로를 위해, 흰옷을 입지 않았고, 흰쌀이 아니라 빵을 주식으로 했다. 마루와 의 자생활로 외관적 사치보다는 실용적인 주거를 실시했고, 거친 황무지를 개척하여 옥토로 개간했다. 그리고 나머지 역점 사업은 농군학교였다. 그는 이상과 목표를 크게 세우고 농군 교육을 했는데, 마침 5·16 군사정변이후 중농정책에 힘입어 농촌 계몽 운동은 급격히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결국 새마을 운동의 효시가 되기도 한다. 김용기가 ‘농군(農軍)’이라고 이름 한 이유도 “가난이라는 적을 물리치기 위해” 붙였다는 것이다.²⁸⁾

김용기는 1970년대의 상황을 난세(難世), 난국(難國), 난장(難場), 난가(難家), 난경(難境)으로 파악했다. 난장이라 함은 온갖 일터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뜻이고, 나가는 가정의 어려움, 난경은 개개인이 곤경에 빠졌다는 것이다.²⁹⁾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치와 낭비와 태만을 고치고, 둘째, 시기, 질투, 이기주의를 버리고, 셋째, 자고(自高), 자만, 독선의 병폐를 고치는 데 있다고 보았다.³⁰⁾ 김용기가 보기에, 이러한 병폐가 온 국민에게 만연해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러한 절망적인 나라의 상황 속에서 마음과 태도를 고치고 사상을 고치는 생활 혁명을 부르짖었으니 그것이 이른바 복민주의(福民主義) 정신이다. 복민주의 정신은 김용기 사상의 출발점이다. 복민주의란 백성을 잘 살게 하자는 목표를 가진다. 그가 판단한 시대상황은 빈부 격차가 심한 물질주의 세계로서 이는 반드시 백성을 복되게 하는 복민의 정신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김용기는 빈부의 차별을 없애고 골고루 잘 살게 하기 위해 가진 자는 재물을 나누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기업체도 직공들에게 이익을 배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정으로 축재한 모든 재산을 국가에 환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반면에 재산을 넉넉히 가진 자 외에도 시대정신을 분간하지 못하고,

27) *ibid.*, p.112.

28) *ibid.*, p.115.

29) 김용기, 『운명의 개척자가 되자』, *op.*, *cit.*, 33

30) *ibid.*, p.36

불을 찾아 날아다니는 하루살이 떼같이 철모르는 퇴폐풍조에 빠져있는 유한배(有閑輩), 협잡배들도 자각하고 회개하여 새로운 살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의무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흔들거리며 사는 금수(禽獸)와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국가·민족주의적 요소

김용기는 일제 치하와 민족적 이념갈등의 최정점인 한국전쟁 그리고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민족주의 내지 국가주의적 사상의 궤적을 분명하게 그리고 있다. 일제 치하의 민족주의적 태도는 시종일관된 것이었고, 좌우대립의 상황에서는 중도적 혹은 반공주의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한편 근대화 과정에서는 다분히 국가발전 이데올로기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가주의적 경도도 숨기지 않았다.

김용기가 나라 일을 떠맡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에게 강연을 하면서 권고하는 내용을 보면 그의 국가관에 대한 사상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70년대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내용들을 살펴봐도 그의 국가관이 드러난다. 이를 몇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살펴보자.

먼저의 공무원의 정신에 대한 생각이다. 주권재민의 국가에서 공무원의 역할은 국민의 심부름 역할이다. 하지만 공무원은 개인의 심부름꾼이어서는 안 된다. 뇌물 수수관계로 공무원이 국가 일 대신에 사리사욕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 특정 정당 후보를 위해 사적으로 일해서도 안 된다. 공무원 부패의 원인은 정신과 사회 풍조에 원인이 있다. 부정행위는 도둑이다. 부정으로 돈 잘 버는 공무원을 부러워하는 국민에게도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의 부패는 국민이 시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부정의 길이 출세의 길로 여겨지니 한심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수한 공무원을 선별하고 나머지 인력은 감소하여 다른 생업에 종사하게 해야 한다. 또한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一罰百戒)하여 엄벌로써 그 병폐를 고쳐야 한다.³¹⁾

다음으로 군인정신에 대한 생각이다. 김용기는 특히 군인들에게 강연을 많이 하였다. 그의 강연을 통해 보면 그의 국가관의 면모를 보게 된다. 그는 공분 본부 군인들 600여명에게 2시간의 연설을 한 것을 시작으로 육, 해, 공군 각 부대

31) *ibid.*, pp.309-314

를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인은 국토방위를 임무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군인은 국가의 간성(干城)이다. 군인을 믿고 백성들은 적으로부터의 위협에 안심하고 생활한다. 군인은 울타리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의 발판이며, 동서양의 중심이 된다. 둘째, 목숨을 아끼지 않는 군인이 되어야 한다. 나라에서 군인의 목숨보다 소중한 목숨은 없다. 군인 하나하나의 목숨은 전체 국민의 목숨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셋째, 군인은 적에게는 호랑이 같이 사나워야 하고 국민에게는 양 같이 순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그 반대의 군인이 있다. 군인이 국민에게 행패를 부려서는 안 된다. 김용기는 이상과 같은 세 가지의 군인 정신으로 군인이 자신의 임무를 다할 때 나라와 가정과 직장이 더욱 알차게 발전하리라 믿었다.

마지막으로 당시 정부 여당에 대한 생각이다. 이 부분에서 근대화 과정에서 그가 취한 국가주의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김용기는 70년대 중반의 한국적 상황, 특히 정치적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 여당에 대한 다음과 같은 건의로서 구국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용기는 국가의 존립 여부는 우선 정부 여당의 바른 지도력에 있다고 판단하며, 그들의 바른 지도를 촉구한다. 그는 단순히 정부 여당을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도 방법에 대해서도 충고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면 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국민총화를 내세우지만 그것은 구호에 지나지 않고 진정으로 백성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김용기는 잘못된 정치와 국가적 위기 상황은 잘못된 정부정책과 불편부당한 경제 정책으로 인한 극심한 빈부의 격차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백성의 궁핍한 상황을 눈으로 보고도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모른 척하면 그것은 민(民)이 천(天)임을 모르는 소치로서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이처럼 정치가의 책임이 막중한 까닭은 헌법의 좋고 나쁨 보다는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방법에 따라 정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정축재로 한편에서 살을 찌우면, 한쪽 백성은 굶게 마련이니 골고루 잘 살아야 하고 서민층을 잘 육성하여야 남북으로 대치된 상황에서 공산주의의 침략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³²⁾ 이와 같이 김용기는 70년대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부정을 척결하고 서정쇄신에 나설 것을 촉구했던 것이다. 그것은 그의 국가관이 민본정치에 있음을 말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것은 1970년대 중반 한국의 정치적 위기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반성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학생들과 학교 당국에 대한 정책

32) *ibid.*, p. pp.8-10

의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학생들의 데모가 반드시 옳을 수는 없고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바른 평가가 있어야 하며 올바른 이유와 방법이 견지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학생들은 머리나 신발 의복 등을 사치하게 하지 말 것이며 단정하게 할 것을 말한다. 무엇보다 학생은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4) 사회교육론

김용기의 사회교육론의 관점은 가정생활의 원칙에서 출발한다. 이는 다소 보수적인 기독교 및 동양적 전통이 엿보이는 가정관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김용기의 사상은 가정생활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가정생활의 모범을 통하여 전통적인 한국의 고질적 병폐를 고쳐나가려고 시도했던 데 있다. 김용기는 당시 한국의 국민정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국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게으름 뿐 아니라 개인주의적이며 봉사정신이 없는 사람들로써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도 없는 문화적 수준 이하의 백성들로 평가했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부정적 부분들을 쇠신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근면하고 계획성이 있으며 자주적이고 협동심이 강하여 봉사정신으로 투철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선 자신의 가족부터 기본적인 생활의 원칙을 제정했던 것이다.

그는 가족을 ‘조그만 국가’로 보았으며, 민족은 ‘부부사회’로 시작하여 ‘가족사회’를 거쳐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그것은 마치 헬렌 켈러가 “초목의 잎사귀가 그 즐기이며, 뿌리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분명하듯이, 국가도 우리 문화와 복리를 위한 고마운 기관이다. 그러므로 국가를 사랑해야 한다.”³³⁾ 했던 점을 강조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가족에서 시작되어 국가 단위로 발전하는 그의 사상은 자연스럽게 애국심이야말로 사회 교육론의 커다란 한 바탕을 이룬다. 특히 국가가 주권을 빼앗긴 일제시대와 6·25라는 커다란 상실기에 국가의 소중함을 그는 더욱 절실히 느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국가의 소중함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국가가 뭐라는 것을 알았다. 전쟁 중에 잠시 국가가 없었을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가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는가를 알았다.”³⁴⁾ 그런데 그의 애국심은 바로 자기 향토에 대한 애착심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애향심에 대한 표현은 국민 각자에게 부여된 충실한 임무를 중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의 중심은 왕이 아니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국가의 장래도 백성의 행위에 따른

33) 김용기, 『참 살길 여기 있다』, p.20.

34)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p.160.

것이라는 백성의 의식과 실천을 중시한 것이다. 백성의 깨어있는 의식과 실천 의지, 그것이 곧 국가의 부로 이어지며 다시 그 부는 통치자의 부가 아니라 백성의 부가 된다는 것이다.³⁵⁾

이처럼 국가나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김용기는 백성들의 애국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 사상가 뒤르케임의 기능주의 이론에 입각하면, 김용기의 애국심은 국가나 사회 유지의 기초가 되는 기능주의적 이론의 토대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³⁶⁾ 이러한 기능주의 의론에 따르면, 사회나 국가 유지의 차원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사회교육론과 정치 경제적 업무 그리고 범죄나 일탈행위에 대해 규제 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사회나 국가를 제각기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각자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고유한 책임을 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같은 맥락이다.

더구나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전통과 고유한 민족 문화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고유의 단합된 전통 문화는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는데도 큰 역할을 한다고 김용기는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특히 농촌문화의 재건에 힘썼다. 예컨대 공동 작업을 하면서, ‘개창운동(皆唱運動)’을 장려하면서 협동의 정신을 고취하고, 농촌문고를 발행하여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각 지방 농촌의 실정과 미담을 언론에 소개하여 홍보에 힘썼으며, 고전 무용을 여흥으로 적극 활용했다.³⁷⁾ 이러한 활동의 장려는 사회가 안정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사회화의 과정을 의식적으로 내면화 할 수 있는 통합적인 기능도 하는 것이었다. 사회의 통합적 기능은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성원 간에 유익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능하게 해 주는 일련의 규칙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는 이론이다.³⁸⁾ 이와 같이 김용기는 사회적 연대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국가와 사회 통합의 교육적 기능을 사회적으로 실천 운동을 벌여 나간 것이다.

김용기의 사회 교육적 측면은 일제와 전쟁을 겪은 한국 사회의 아노미적 현상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통합적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는 셈이다. 사회가 분열되고 남북이 갈라진 상황에서 해체적 아노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철저한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여 빈궁과 전쟁 그리고 죽음의 세력과 싸워 나갔다. 그리하여 특히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과 희생의 봉사 정신을 가르쳤다. 그가 막사이사이상을 수상 할 때 행한 연설문을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35) *ibid.*, p.351.

36) 이건만, 『교육과 사회사상』, (서울: 문음사, 1999), p.14.

37) 김용기, 『참 살길 여기 있다』, pp.62-63.

38) 이건만, 『교육과 사회사상』, p.19.

조물주의 지혜와 총명과 사랑의 이념으로 인류의 평화는 가능하다. ...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이념을 높이 들어 전 인류평화를 이룩하는 십자군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³⁹⁾ 이러한 김용기의 사회 교육 사상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가정의 평화에서 사회로 이어지면서 국가와 세계 평화로 이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와 국가가 평화로운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전제 되어야 한다. 그 합의는 불평등에 근거한 갈등과 투쟁이 아니라, 분배와 함께 도덕적 합의까지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기에, 김용기는 그 근거로서 기독교 정신의 희생과 봉사의 사랑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용기는 노동에 입각한 직업적 소명을 중시했는데, 그 스스로 농사꾼이 된 것도 그러한 이유다. 그의 노동관은 노동을 천시한 일면이 있는 유교 사상도 아니고, 살생을 금지한 불교에 입각한 것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한 요한복음 15장 1절의 ‘참 포도나무’ 비유를 성서적 진리로 여겼다. 이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자신도 일해야 한다는 노동관에 입각한 실천적 사회교육 사상이었다.⁴⁰⁾

2. 김용기 교육 사상이 끼친 영향들

1) 교육 사상에서 끼친 영향

일가의 교육사상 및 실천이 근세 한국 사회 교육 사상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 특히 가나안 운동으로 대변되는 그의 농민 계몽의 실천운동은 한국 근대사에서 분명한 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한국 근대사의 배경과 깊은 연관이 있다. 예컨대 일제 식민지 상황과 남북전쟁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 점에서 김용기의 교육 사상은 한국의 사회적 맥락과 그 특수성을 고려해야만 하는 관계가 있다. 일가의 교육 사상과 실천이 한국 교육 분야에서 미친 영향을 몇 가지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가의 사상은 기독교적 기반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일가는 동양적 전통, 특히 한국적 전통의 흐름을 충분히 수용하였기 때문에 개신교적 종교관이라는 공통성 이외에도 독자적인 수정 및 보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9)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pp.343-345.

40) *ibid.*, p.209.

둘째, 일가의 사회교육 실천 분야에서 끼친 영향은 교육 방법론적 입장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성인교육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실천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일가의 사회교육의 방향과 방법은 대체로 농촌 생활의 경제적 목적에서 점차 국민적 운동의 성격으로 확대되면서 한국적 사회교육 방법론을 정립해 갔던 특수한 측면이 있다.

일가의 사상이 기독교를 토대로 성인교육을 실천한 내용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지역 공동체에 대한 평생 교육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오혁진은 “일가 김용기의 지역공동체 평생 교육 사상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김용기가 일제 치하에 봉안 이상촌 운동에서 시작하여 가나안 농군학교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서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평생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고 주장한다.⁴¹⁾ 일가의 영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영향중의 하나가 바로 계몽적 교육 사상이라면, 그것도 평생교육으로서의 성인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가나안 농군학교 사례는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아주 훌륭한 사례가 된다. 최혜석은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의 가나안 농군학교 사례연구”⁴²⁾에서 한국 평생교육의 시대별 특성을 언급하면서 가나안 농군학교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가나안 농군학교를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이상촌 시대의 가나안의 사회 계몽 교육과 1962년 하남시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개교하여 5.16 이후 제5공화국에 이르는 기간 동안 새마을 운동이 확산된 시기에 형성된 국민정신 교육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리고 국제화 시대 가나안의 세계시민 교육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연수생을 교육하고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아시아의 빈곤을 타파하고자 해외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워 지금까지 교육하고 있는 점이다. 농군학교의 사례는 이처럼 지역 사회의 계몽교육으로부터 시작하여 국민정신 교육, 더 나아가서 세계 시민교육으로까지 확대되었다.

2) 신앙적으로 끼친 영향

김용기의 기독교 사상은 칼빈주의 개신교를 수용한 아일랜드 청교도주의의 미국적 토착화 형태를 받아들인 한국의 초기 형식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

41) 오혁진, “일가 김용기의 지역공동체 평생 교육 사상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학 연구』, vol. 14, (2008), p.33.

42) 최혜석,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의 가나안 농군학교 사례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p.6-49.

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과 영향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김용기의 교육과 생애는 한마디로 신앙의 실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신훈 김용기 장로와 가나안 '복민운동'에 관한 일종의 김용기 평전에 관한 책이 나왔다. 저자 조용식은 김용기 장로를 '신앙 현실주의자'⁴³⁾라고 평가한다. 그의 평가에 의하면, 27세에 김용기는 장로가 되지만, '장로'라는 명칭은 그에게서 "신앙적, 민족적 승리의 상징"으로 표방된다. 그 이유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와 창씨개명 등을 강요하면서, 숭실학교와 평양신학교가 1938년에 폐쇄되고, 제27회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던 마당에 김용기는 그의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그의 심정을 밝힌다.

“내가 신사 참배문제로 저들에게 잡혀가 그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된 것은 나이 27세였다. 봉안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받게 되었는데, 이 장립식 석상에서 말썽 많은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 동방요배(東方遙拜)와 황군장병 무운(皇軍將兵武運)을 비는 1분간의 묵도를 거부하고 나선 때문이었다. ‘못합니다!’ ... 나의 이 한마디는 지금껏 칼로도 총으로도 찍지 못했던 우리 봉안교회, 아니 지조를 지키려는 우리 기독교인의 정절의 부르짖음이었다. ... 내가 이렇게 단호히 나오자 동방요배를 우기고 나섰던 분들도 한발 양보, 장로장립식을 그대로 마쳤다. 그러자 예상했던 대로 나는 양주경찰서에 끌려가게 되었고 혹독한 고문은 1주일간 계속되었다.(나의 한길 60년, 44-47쪽)”⁴⁴⁾

이상의 언급에서 보듯이 김용기는 장로직을 신앙을 지키고 민족을 지키는 양심의 직분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일제에 항거한 정신이자 동시에 신앙을 사수하려는 “기독교 민족정신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김용기의 신앙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삽”이라는 그의 구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앙을 생활 속에서 실천적으로 구현한 인물이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창세기 3장 18절 이하의 말을 들려준 것에서 농사의 일을 신앙의 일처럼 생각하게 된 것이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라는 말씀을 새겨두고 일평생 실천했던 것이다. 성경과 한학으로 무장된 김용기의 신앙은 일제치하에서 김교신, 함석헌 등과 함께 성직자가 아닌 ‘일반인’이 꾸준히 공부한 성경연구는 해방이후 YMCA 성경 강의 등에서 보듯이 조선지식인의 기독교 전통을 실천적으로 이어간 인물로 평가된다.

43) 조용식, 『가나안, 끝나지 않은 여정』, (서울: 포이에마, 2016), p.26.

44) ibid., pp.27-28.

그는 성경을 ‘신학’의 전유물로만 두지 않고 ‘삶의 지침서’로 활용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의 신앙과 실천 운동은 한국 교회사에서도 황무지를 개척한 복음의 전도자로서 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성경에 기초한 ‘에덴’ 농원이거나 ‘가나안’ 농장을 개척해 갔는데 바로 이러한 이름 자체가 신앙을 생활 속에 적용한 기독교 현실주의자라는 점을 뒷받침 해준다. 또한 그가 개척한 황무지에는 예외 없이 교회를 세웠다는 점에서도 신앙과 개척의 노동과 기도가 일치하고 있는 삶을 보여준 셈이다.

김용기의 사상 가운데 신앙적 측면의 핵심 사상은 역시 그의 ‘영성적 삶’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고재성은 “김용기 장로의 영성적 삶”이라는 글에서, 그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음의 세 가지로 들었다. 첫째,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이론과 실천에서 견비해야 하는데, 김용기의 영성적 삶이 그렇다는 것이다. 둘째,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 해결의 기독교적 방식만이 유일한 특효약으로 증거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다원화된 오늘날의 시대에 통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기독교적 시각에서는 충분히 그러한 주장을 할 만하다는 것이다. 셋째, 타종교와의 관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에 따라서 철저히 살아감으로써 타종교와의 만남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⁴⁵⁾ 김용기의 영성적 삶에 있어서의 이 부분은 다른 종교와의 관계적 측면에서 이론적으로는 배타적이지만, 복음적 실천적 측면에서는 만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 다른 측면에서 김용기의 신앙적 사상의 영향력은 농촌 선교 운동이라는 측면도 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독교 민족 운동의 성격을 띤 대국민 계몽 운동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6.25 전쟁 이후 폐쇄해진 한국 사회의 재건을 위한 노력은 물론 세상 속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염원하고 실천했다는 점이다. 이른바 정신적 혁명과 황무지 개척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기독교 민족주의 정신으로 실현해 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 일가의 사상이 지역사회 개발에 있어서 계몽주의적으로 끼친 영향

일가의 목민주의(牧民主義) 계몽관은 신인문주의적 색채를 가미한 사회 계몽관이였다. 그 대표적인 흐름이 아마도 신인문주의적 낭만주의일 것이다. 일가의

45) 고재성, op., cit., pp.84-85.

교육사상과 실천의 기초에 놓여 있는 사회 계몽주의는 분명 인본주의적 전통에 있음에 틀림없지만, 일제 치하라는 상황은 서구의 보편적인 흐름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가의 인본주의적 사회 계몽관은 독자적인 측면이 있다.

일가의 계몽주의적 성격은 서구 유럽에서 등장한 인문주의 전통과 어느 면에서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인문주의(人文主義, humanism)는 글자 그대로 인간과 글을 중시하는 사조로서 16세기 서구 유럽에서 등장했던 것이다. 중세 기독교 사회의 폐쇄성과 비합리주의 관행을 비판한 르네상스 이후의 사상사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중세의 종교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정신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탐구와 비판력을 자극함으로써 인간의 창의적 능력을 최대한 신장하려고 하였다. 이탈리아 인문주의는 귀족적이고 심미적 추구를 지향하는 개인주의 성격이 강했던 반면, 북유럽의 인문주의는 사회개혁과 도덕적 발전에 더 큰 관심을 두는 사회적 성격이 강하였다. 이점을 고려한다면 일가의 인문주의는 북 유럽의 전통과 맥이 닿아있다. 하지만 일가의 인문주의는 철저한 신 중심적 인문주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계몽적 성격을 띤 신 중심적 인문주의라는 특징을 지닌다는 것이다.

계몽이란 아직 미(未)자각의 상태에 잠들고 있는 인간에게 이성(理性)의 빛을 던져주고, 미망에서 깨어나게 함을 의미한다. 계몽주의는 17세기 말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시작하여 18세기 후반에 프랑스에서 전성기를 이루었던 사상이며, 프랑스 혁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에 바탕을 두고 현세적 삶의 행복과 효용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봉건적 낡은 사상을 혁신적인 사상으로 혁신하는 데 기여했는데, 계몽주의는 하나의 철학이라기보다는 정신의 해방이며, 진보의 정신으로 고양된 이성의 자유로운 검증에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하는 용기 있는 결단, 즉 그러한 철학적 태도를 가리킨다. 따라서 계몽주의 교육사상은 인간교육을 통하여 보다 나은 사회의 건설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바로 이러한 계몽적 성격이 일가에게서 한국적 상황의 가나안 농군학교 운동으로 확산 된 것이다.

일가의 계몽적 사상은 그가 내세운 슬로건인 “조국이여 안심하라”라는 표어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 표어는 1938년에 ‘봉안 이상촌’을 함께 세운 평생 동지 여운혁과 함께 시작한 것으로, 이후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고 구국기도실을 만들 때도 이 문구를 입구에 써 붙였다. 이는 일제 침략하의 조선 지식인들도 친일파에 속속 홀려들어가던 시기에 조국을 지키고자 하는 굳은 민족주의 정신과 함께 대국민 계몽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이상

촌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코자 했고, 1962년에는 가족과 함께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시한 이래 농장을 학교로 삼아 본격적인 대 국민 계몽운동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농군학교는 처음부터 제도권 학교가 아니라는 데서 더욱 계몽적 성격을 띤다. 1973년에는 제2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고, 이제는 동남아 12개국에 까지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워 ‘공동체’로서의 운동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김용기의 복민 운동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특히 농촌 지역 사회 개발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강상민(2003)은 “가나안 복민 운동이 농촌 지역 사회 개발에 미친 영향”⁴⁶⁾이라는 논문제목에서 그는 우선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네 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과정, 방법(과정과 목표), 프로그램(방법 및 내용), 운동(프로그램과 감정적 역할)이라는 준거틀에서 과정이라 함은 진보적 변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다. 한 사람의 리더십에서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상태로의 변화 등,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상태로의 변화 과정이 된다. 특히 지역사회 개발은 주민들이 관여하는 형태로의 원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말하는데, 운동이라고 함은 찬성이나 반대를 뜻하는 감정적 요소를 수행하기 마련이다. 여기서 김용기의 운동은 주민들의 감화를 수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일가의 농촌 지역 사회 개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보기 위해서는 가나안 복민 운동의 중심 내용이 농촌 지역사회 개발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민간 차원의 가나안 복민운동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배제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강상민(2003)은 가나안 복민운동을 3가지 차원에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 농장 개척, 둘째, 교육, 셋째는 협동조합 운동(공동체 운동)이다. 농장 개척 부분에 있어서 정신교육과 주민의 노력, 그리고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근면, 자조 정신이 해당된다. 둘째,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근로, 희생, 봉사, 자조 자립정신, 검소 절약, 효 사상, 지도자 양성, 체계적 계획수립, 문제 해결 능력 등이 내용을 이루고, 셋째, 협동조합운동은 공동체 훈련으로 협동, 참여, 체계적 리더십 교육, 조직 실천이 내용을 이룬다. 이러한 세 가지 방면의 내용이 가나안 복민운동의 기본적인 사회 운동을 이루며 농군학교 교육과 협동조합 운동 및 농장 개척이 지역 사회 개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효과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 교육효과는 절약, 효사상, 개척정신(근로, 희생, 봉사), 지도력, 주민 참여 및 노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⁴⁷⁾ 특별히 근로, 희생, 봉사는 김용기의

46) 강상민, “가나안 복민운동이 농촌 지역사회 개발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p.13.

47) *ibid*, pp.20-21

복민주의 사상 가운데 가장 핵심을 이루고 후대에도 그러한 영향은 지역사회와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정재호(2006)는 “김용기의 기독교 민족운동이 사회와 교회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통해 일가가 평생 실천하고 전개한 기독교 민족운동은 단순히 농촌 선교운동의 차원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농촌 운동을 포함하여 국민 정신교육의 장으로 확대 되어 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⁴⁸⁾ 일가의 사상이 특정 계층이나 지역으로만 한정 된 것이 아니고 대중적 전국적 사회교육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IV. 김용기 교육 사상에 대한 평가

1. 교육 사상에 대한 평가

김용기의 교육 사상은 교육사상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첫째, 그는 계몽성과 사회개조를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그의 교육실천 과정을 생애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가 농촌에서 농민들의 삶의 태도를 개선 하려는 시도에 나타난 것을 보면, 그의 사회교육이 계몽주의에 기초해 있음을 분명히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의식주의 개선과 간소화 그리고 미신 타파 등으로 생활 개혁이 그러하다. 특히 새로운 경제생활로 술 담배에 대한 절주와 금연 운동, 주거 생활의 개선으로 안정된 거실과 위생적인 설비시설 그리고 작업 장과의 거리, 식생활의 개선으로, 쌀밥보다 영양가 높고 비용이 적게 드는 빵을 먹고, 부식물은 날것을 먹으며, 단백질 보급으로 젓양을 기르고, 고구마를 생산 주식으로 하는 것, 작업에 어울리는 의(依)생활의 개선, 의식(儀式)의 개선. 결혼식이나 장례 혹은 제사 때문에 치르는 허례허식 등을 없애거나 간소화, 육체 면의 생활 개선이다. 화장도 남편의 의향을 따라서 하는 게 좋다는 것과 미신의 타파다. 그는 미신은 문명의 대적이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일수록 미신을 많이 신봉한다면서 이를 배격한 것 등이 그것이다.

둘째, 김용기는 민족주의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외부의 침략에서 자국을 보호하려는 민족주의 정신이 함께 배태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민

48) 정재호, “일가 김용기의 기독교 민족운동이 사회와 교회에 미친 영향”, (합동신학 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P.106.

족주의 사상은 오늘날의 세계화한 지구촌 환경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일제 치하에서 독립심을 일구고자 한 애국심에서 나온 충정심의 발로였음을 이해하게 된다.

셋째, 김용기는 비록 산업화 과정을 이미 경험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지만, 농업 및 농촌 사회를 교육실천의 공간으로 삼고 있다. 특히 김용기가 농업에 대한 전통적인 편견을 비판하는 부분은 산업화 시기의 암울한 미래상을 미리 예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것은 농업을 중시하는 ‘오래된 미래’를 예고한 종농주의 정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상 농민을 천대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했고, 동서나라들의 흥망사가 이를 증명해 준다고 그는 주장했던 것이다. 그는 학문이라는 것은 자연의 현상을 연구하는 것인데, 농사일이야말로 얼마나 자연의 섭리를 깊이 공부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주장한다. 자연법칙의 오묘함은 실로 경이로운 것이어서, 자연의 신비함을 직접 피부로 느끼며 일하는 농사꾼이야말로 결코 우매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농사꾼이라면 오히려 더욱 현명해지게 된다는 논리다.

넷째, 김용기는 개인의 지식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개인의 의지의 변화를 강조했다. 따라서 어린이와 젊은이에 대한 교육을 특히 강조했다. 개인의 도덕적 감화와 변화 없이 국가가 건전하게 발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김용기는 시대의 개혁적 선구자라는 점이다. 앞서 이미 그가 계몽적 정신의 소유자라고 했지만, 단순한 계몽의 차원을 넘어선 시대와 역사적 운명과 사명의식에 투철한 선각자였다는 점이다. 그 역사적 의식을 이들은 모두 깊은 회개와 반성의 촉구, 또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간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일가의 국내외적 평가

1977년에는 가나안 농군학교의 위상이 해외로까지 알려져 ‘미국 기독교 실업인회’의 초청으로 도미하여, 교회와 신학교, 교포단체 등에서 10여회 강연을 하기도 했다. 1978년에는 또 하나의 역작인 『그분의 말씀을 따라』를 출간했다. 이 책은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인간이 바르게 살아가는 길과 인간 교육, 잘 사는 길, 복된 정신, 온 겨레에 대한 글, 새마을 운동, 황무지의 개척 등이 수록되어 있어서 그의 사상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⁴⁹⁾

49) 김용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서울: 창조사, 1978).

같은 해에 김용기의 업적을 해외에서도 평가하여 필리핀 세이비어 대학교에서 명예 인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71세가 되던 1979년에는 『이것이 가나안이다』(박완 편저), 『가나안 농군학교』를, 그리고 1980년에는 『나의 한길 60년』, 『조국이여 안심하라』를 잇따라 출간했다. 1980년에는 가나안 농군학교의 성공적인 운영과 활동을 높이 평가하여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 인명사전센터(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에서 발행한 『국제 인명사전』에 ‘인문학 박사 김용기’의 인물과 업적이 수록되기도 했다. 지출 줄 모르는 김용기 선생은 이제 나이 74세에도 미래의 일꾼들을 위한 안내서로서 『영광된 내일을 위하여』라는 책을 또 출간한다.

최근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농민운동가 김용기의 ‘복민주의’를 재조명하다”라는 기사에서 조용식 박사의 책, 『가나안 끝나지 않은 여정』이라는 책을 평가하고 있다. 이 보도와 평가에서 “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발견하지 못할 뿐이다. 관계의 기반 위에서 자신의 일을 찾고 숭고한 이상과 고귀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김용기의 진술을 인용하면서, 평생 농사일에 종사하며 황무지를 개간하고 농촌을 섬기며 농민 계몽에 앞장선 공로로 국제적 인정을 받아 1966년 라몬 막사이사이상과 1973년 인촌 문화상을 받은 점을 소개하기도 했다.⁵⁰⁾

현재 일가의 이러한 국내외적인 공로는 일가상으로 제정되어 해마다 시상식을 하는데, 일가재단(이사장 손봉호)은 지난 9월 3일에도 제26회 일가상 및 제8회 청년 일가상 시상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일가상은 일가 김용기 장로의 개척정신과 신앙의 생활화 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올해의 일가상을 수상한 주형로 정농회 회장은 1994년 국내 최초로 벼농사에 오리농법을 도입한 사람이다. 그리하여 2000년부터 충남 홍성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생태 마을을 조성하면서 ‘정직한 농부’의 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⁵¹⁾ 이 같은 일련의 일가상 시상식은 매년 한국 사회에 일가의 사상과 정신을 고양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고 볼 수 있다.

해외에서 가나안 농군학교가 1991년에 방글라데시에 설립된 이래, 1999년에는 필리핀, 2002년에는 미얀마, 2004년에는 중국, 2005년에는 인도네시아 등으로 가나안 운동이 세계화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도, 요르단, 라오스, 캄보디아, 가나, 말라위,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도 지속적으로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 추진하고 있다. 이는 70년대 한국에서 가나안 농군학교가 국민적 정신교육 운

50) 연합뉴스, 2016, 10, 10.

51) 국민일보, 2016, 9, 4.

동을 담당하고 경제 자립 모델을 추진한 것처럼, 해외 각국의 빈곤층에게 삶의 목표와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각국마다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⁵²⁾ 이러한 일련의 성공을 통해 일가는 각종 수상과 감사패를 전달 받음으로써, 국내외의 기관들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국내에서의 수상경력은 1962년 농림부 장관상, 같은 해 공보부 장관으로부터 향토 문화 공로상을 수여했고, 1966년에는 해외에까지 알려져서 필리핀의 라몬 막사이사이상을 받았다. 1973년에는 인촌문화상을, 같은 해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새마을 훈장을 받았고, 78년에는 필리핀 세이비어 대학교에서 명예 인문학 박사학위를 받게 된다. 가나안 운동의 이러한 성공적 사례는 김용기가 고인이 된 후에도 그 정신이 살아남아 1988년에는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국민 훈장 무궁화장을 수여받는다.⁵³⁾

V. 결론: 목민(牧民)주의 사상의 전망

이상에서 우리는 김용기의 교육 사상이 지니는 특징과 그 영향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그의 교육 사상은 한마디로 목민주의라는 정신으로 수렴될 수 있는 것이다. 그의 투철한 신앙관에 입각한 계몽주의적 교육 사상과 실천의지는 모두 백성을 이롭게 하는 목민적 정신에서 비롯 되었다. 따라서 김용기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계몽주의적 목민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원래 목민사상은 서양의 인간중심사상에 해당하는 동양적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의 근본을 백성에게 두어야 한다는 동양유교국가론에 입각하여 공자와 맹자의 민본, 애민사상을 가리킨다. 조선 실학사상의 대가인 다산(茶山) 정약용은 한국적 전통에서의 목민사상을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에 따르면 “목민은 멀리 요순에서 시작되었다. 성현의 가르침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인데, 치민(治民)하는 것이 목민하는 것이며, 학은 수신(修身)이 반이요 나머지 반은 목민이다.” 따라서 목민은 치민의 뜻에서 본받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목민사상은 민본주의 전통을 반영한 것으로서 일가 김용기도 농민들의 자생적 자활을 목표로 그들의 관점에서 공동체를 운영했다는 점에서 이를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김용기가 강조하는 목민 정신은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의식화’ 교육과는 다르

52) 최혜석, op., cit., p.56.

53) 림영철, 『일가 김용기와 가나안 이상촌 운동』, (서울: 재단법인 일가재단, 2009), pp.919-925.

다는 주장이 있다.⁵⁴⁾ 목민주의는 복민(福民)사상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백성들을 복되게 한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목민주의로 설명 될 수 있는 이른바, “가나안 복민주의는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며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의식들을 일깨운다.”는 점이다. 김용기 자신이 1968년에 썼던 그의 책,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근로의 목적을 ‘빈곤’의 탈출이라고 규정했던 것도 당시의 시대적 빈곤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이었다. 백성들의 빈곤에서 해방시키고자 했던 그의 열망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75년에 출간한 『심은대로 거두리라』라는 책에서는 더 이상 ‘빈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부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⁵⁵⁾ 근로의 이념이 빈곤의 탈출에서 부국의 이념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게 된다는 점이다. 김용기가 주장한 3대 슬로건인 근로와 봉사와 희생의 가치도 주체적 의식의 회복과 함께 근로의 소중성을 일깨우는 목민주의적 사상에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3대 가치는 고도로 산업화되고 정보화된 최첨단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목민적’ 혹은 ‘복민적’ 기제가 될 수 있다.

김용기의 목민적 사상은 다시 진선미성(眞善美聖)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사람이 사는 목적을 ‘진, 선, 미, 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산다고 했다. 그것은 다시 구체적으로 학문(眞)과 도덕(善), 예술(美), 종교(聖), 신체(건강), 생활(富)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서 진선미성은 목적가치라 하고 건강과 부를 수단 가치라고 불렀다.⁵⁶⁾ 이러한 가치는 시대가 흘러도 변함없이 소중한 가치다. 따라서 김용기가 강조하는 목민의 가치는 목적과 수단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현대의 위기는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고 있다는 데서 시작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예컨대 건강과 부를 추구하기 위한 종교라면 기복종교에 불과할 것이고, 건강과 부만을 위한 진리추구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용기의 목민사상은 목적과 수단이 조화와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에도 그 가치는 소멸되지 않으리라는 전망을 해 보게 된다. 다만 그가 지닌 가부장적 편견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아내는 남편을 위해 저녁에 화장을 해야 한다는 것도 일종의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 할만하다. 하지만 당대 농사일을 중시하던 상황에서 사치함을 멀리하라는 검소한 생활의 강조라고 본다면, 이해 할 수 없는 일도 아니다.

54) 조용식, 『가나안, 끝나지 않은 여정』, op., cit., p.158.

55) ibid., p.160.

56) ibid., p.176.

참 고 문 헌

- 강상빈(2003). **가나안 복민운동이 농촌 지역사회 개발에 미친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고재성(2000). **김용기 장로의 영성적 삶**. 기독교 사상.
- 김용기(1962). **황산을 가나안의 복지로**. 서울: 여원.
- 김용기(1998). **가나안으로 가는 길**. 서울: 규장.
- 김용기(1978). **그분의 말씀에 따라**. 서울: 창조사.
- 김용기(1975). **운명의 개척자가 되자**. 서울: 배영사.
- 김평일 엮음(2007).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하남시: 가나안 문화사.
- 림영철(2009). **일가 김용기와 가나안 이상촌 운동**. 서울: 재단법인 일가재단.
- 오혁진(2008). 일가 김용기의 지역공동체 평생 교육 사상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학 연구**, 14(1), 33-56.
- 이건만(1999). **교육과 사회사상**. 서울: 문음사
- 정재호(2006). **일가 김용기의 기독교 민족운동이 사회와 교회에 미친 영향**. 석사학위논문. 합동신학 대학원대학교.
- 조용식(2016). **가나안, 끝나지 않은 여정**. 서울: 포이에마.
- 최혜석(2006).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의 가나안 농군학교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국민일보, 2016, 9, 4.
- 연합뉴스, 2016, 10,10.

Abstract

A Study Yong-Ki Kim's 'Mokminism (the idea of governing the people)'

Ho-Sung Lee (Hongik University)

This thesis revolves around the thinking of Kim Young-Ki, who was an enlightenment activist for Korean farm villages and a national spiritual educator who adheres to "Mokminism" (the idea of governing people). I analyzed Kim's educational background and movement, with his life and thinking as frames of reference. The principles by which Kim abided reflect an educational character. First, he lived his life being the master of his destiny and espousing a pioneering spirit during times of national crisis. Second, he concentrated on capitalizing on the humanistic spirit in overcoming the crisis of the times. Third, as a Christian, he strived to educate adult farmers on the basis of God-centered thought. Fourth, he advocated alternative education as lifelong education instead of systematic education. Fifth, Kim practiced independence while promoting nationalism and educated people regarding this principle. Finally, Kim's educational method has become a model of lifelong and alternative education, whose use has expanded to other nations.

The success of Kim's social educational movement is grounded in an indomitable Christian faith and a strong sense of duty to satisfy the needs of the times. The movement was especially focused on nationalism that was intended to enlighten farm villages. He was a practical enlightenment activist, who armed himself with faith and morality, and a historical figure, who expanded his ideas from education for local society to the spirit of world citizenship. Kim's educational thought has been recognized by other countries, earning him many awards from his home country and foreign lands. He established communities in 12 Southeast Asian countries, where his ideological lessons are very effective, especially in dehumanized modern industrial societies.

Key words: Kim Young-Ki, educational thought, social education, enlightenment activists for Korean farm villages, humanism, “Mokninism” (the idea of governing people)